모두투어

월간 실적보고

2015.12

Summary of 2015 Dec

1.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30.4%** 성장

- 패키지 **22.7%** / 티켓 **42.7% YOY** 성장

  패키지 **15**년 중 **8**번째 **10**만명 송출 **(10.8**만명**)**

  티켓 **15**년 중 최다 월간 모객 **(7.7**만명**)**

2. 일본 **49.8%** / 미주 **33.8%** / 중국 **21.3%**

- 일본 **4**분기 **40%** 이상 성장률 지속
- 미주 **15**년 중 최고 성장률
- 중국 **3**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

12월 : 준수한 15년 마무리

12월 합산 (패키지+티켓) 성장률 30.4%, 송출인원 18.5만명. 14년 12월 합산 성장률 34%의 기고인 상황에도 전년대비 30.4%의 성장을 했습니다. 더욱이, 파리테러 등 하반기 악재의 영향권 아래 있는 4Q15임을 고려하면 기고와 악재가 겹친 기간임에도 준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의 성적은 "기고효과가 있는 16년에도 성장성이 좋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긍정적인 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키지 성장률 **22.7%**, 송출인원 **10.8만**. 9월부터 매월 점증하던 성장률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20%를 넘는 성장률로 티켓과의 성장률 격차를 줄였습니다. 볼륨면에서는, 올해 8번째로 월간 송출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14년은 월간 10만명 이상 송출이 단 한번이었던 것을 본다면 양호한 15년 마무리 입니다.

티켓은 성장률 **42.7%**, 송출인원 **7.7만**. 15년 중 가장 많은 월간 송출인원을 기록하였고, 40%를 넘는 전년대비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14년 12월의 기고(YOY 성장률 62.8%)에도 불구한 좋은 성과였습니다.

12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5	**108,149**	**77,521**	**185,707**
2014	88,114	54,316	142,430
YOY	**22.7%**	**42.7%**	**30.4%**

패키지 YoY : 10월 21.4% → 11월 25.8% → **12월 22.7%**

티켓 YoY : 10월 47.8% → 11월 57.2% → **12월 42.7%**

총송객 YoY : 10월 30.1% → 11월 36.5% → **12월 30.4%**

일본 49.8% ↑ 미주 33.8% ↑ 중국 21.3% ↑

12월 해외 지역별 인원 성장률은 전년대비 **일본 49.8%, 미주 33.8%, 중국 21.3%,** 지역별 인원비중은 **동남아 45.6%, 일본 21.6%, 중국 18.8%** 입니다.

일본 49.8%, 15년 10월부터 전년대비 성장률 40% 유지, 크리스마스와 연초 신정으로 인한 짧은 연휴를 즐기는 수요가 많은 기간이었으며, 단거리에서 일본의 인기는 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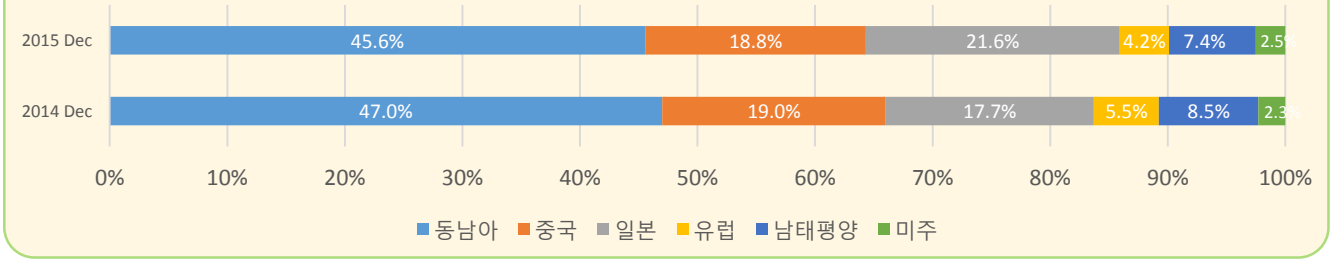
미주 33.8%, 지난 달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며 2자리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중국 21.3%, 8월 저점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높였고, 전년 동월 36%의 기고에도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 -7%, 겨울 비수기와 파리테러 영향이 겹쳐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6년 2월 설연휴를 시작으로 유럽의 성수기인 봄에 접어들면 다시 좋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이 기고임에도 **플러스 성장**을 하며, 16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게 하였습니다.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명, %)

	16년 1월	16년 2월	16년 3월
2016년	117,114	59,936	21,258
2015년	105,698	47,393	17,539
증감률	10.8%	26.6%	21.2%

* 2016.1.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16년 1월은 기고효과 (15년 1월 전년비 성장률 30%)가 MERS로 인한 이연 수요로 상쇄 되었으나, 연이은 유럽지역 테러와 서유럽 비수기가 겹치며 악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장거리 여행수요 감소와 예약률 둔화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볼륨성장 측면에서, 1월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매출과 볼륨 증가의 간극 감소로 인해, 부족한 볼륨을 매출증가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간극 감소는 15년 ASP 하락의 핵심요소였던 유류할증료 하락이 16년에는 Zero-Base화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16년 1분기의 본격적인 성장은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기고에도 불구 20% 이상 볼륨성장을 하고 있으며, 테러 이후 부진했던 유럽지역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행 적기인 봄 시즌을 겨냥한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악재에서 벗어날 것이고, 전체적인 성장도 이에 탄력을 받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것으로 기대됩니다.